

10월 주일 오후 예배 기도문

10월 주일 오후 예배 기도문

10월 주일 오후 예배 기도문은 한 해를 마무리해가는 가을철에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와 회개의 기도입니다. 추수감사절이 있는 10월은 하나님의 은혜를 되돌아보며 감사드리기에 가장 적합한 시기입니다. 주일 오후 예배는 오전 예배와는 다른 깊은 묵상과 성찰의 시간으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고 새로운 한 주를 준비하는 소중한 시간이기도 합니다.

10월 주일 오후 예배 기도문 1 - 추수감사의 기도

“너희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데살로니가전서 5:18)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주일 오후 예배로 나아와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릴 수 있음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10월의 선선한 바람과 함께 우리에게 주신 한 해의 결실들을 바라보며,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깊이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올해도 어김없이 우리에게 풍성한 수확을 허락하신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봄에 뿌린 씨앗이 여름의 뜨거운 햇볕과 비를 맞으며 자라나 이제 가을에 열매 맺게 하신 주님의 섭리를 경배합니다. 이는 단순히 자연의 순리가 아니라 우리 인생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주님의 신실하신 약속임을 고백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 일하신 하나님의 손길들을 기억합니다. 때로는 어려움과 시련이 있었지만, 그 모든 과정을 통해 우리를 더욱 성숙한 믿음으로 인도하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건강을 지켜주시고, 가정을 보호하시며, 일터에서 필요한 지혜와 능력을 주신 모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며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하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주일마다 이렇게 모여 예배드릴 수 있는 자유와 평안을 주시고, 말씀을 통해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제 다가오는 겨울을 맞이하며 한 해를 정리하는 이 시기에, 우리로 하여금 더욱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의 뜻을 구하게 하시고, 받은 은혜를 이웃과 나누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0월 주일 오후 예배 기도문 2 - 회개와 새로움의 기도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요한일서 1:9)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10월 주일 오후의 고요한 시간에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나아옵니다. 한 주간의 바쁜 일상 속에서 놓쳤던 주님과 깊은 교제를 이 시간을 통해 회복하고자 합니다. 주님, 먼저 지나온 한 주간 동안 우리가 범한 죄악들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잡은 교만과 이기심, 이웃을 향한 차가운 마음과 판단하는 마음들을 회개합니다. 말과 행동, 생각에서 주님의 뜻에서 벗어났던 모든 것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가을철에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풍성한 은혜들을 당연하게 여기며 감사하지 못했던 우리의 무감각함을 회개합니다. 매일 주시는 일용할 양식과 건강, 가족의 사랑과 친구들의 우정, 안전한 거처와 평안한 잠자리까지도 모두 주님의 은혜인 줄 알면서도 감사하지 못한 마음을 돌이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편 기자가 고백한 것처럼 우리 안에 정결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새로운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10월의 선선한 바람이 답답했던 여름 더위를 날려주듯이, 성령님의 바람이 우리 마음의 답답함과 무거움을 날려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주님께서 용서하신 우리가 이제는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를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받은 은혜만큼 베풀며, 위로받은 만큼 다른 이들을 위로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다가올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며, 매 순간 주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0월 주일 오후 예배 기도문 3 - 교회와 성도를 위한 기도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로마서 12:1)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아름다운 10월 주일 오후에 우리 교회 공동체와 모든 성도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주님께서 세우신 이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우리 교회의 담임목사님과 모든 교역자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시는 목회자들에게 성령의 지혜와 능력을 부어주시고, 항상 주님의 마음으로 양들을 돌보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을 지켜주시고 가정에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모든 직분자들과 봉사자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각자 맡은 사역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는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힘과 지혜를 주시옵소서. 서로 협력하고 격려하며 한마음으로 주님의 일을 감당해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가을철에 새신자로 교회에 나오시는 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따뜻한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참된 구원의 확신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존 성도들도 새가족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돌보는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다음세대인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을 특별히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유혹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켜나가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일학교 교사들과 부모님들에게도 지혜를 주셔서 아이들을 잘 인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각자가 받은 은사와 달란트로 교회 공동체를 섬기며, 지역사회와 이 땅을 위해서도 복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10월을 통해 더욱 성숙한 믿음의 공동체로 세워져 가기를 간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0월 주일 오후 예배 기도문 4 -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

“내가 그 땅의 백성 중에서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 서서 나로 하여금 그 땅을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찾았으나 찾지 못하였느니라” (에스겔 22:30)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10월 주일 오후의 평안한 시간에 우리나라와 민족을 위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가 사는 이 땅 대한민국을 주님께서 친히 다스리시며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우리나라의 최고 지도자인 대통령을 비롯하여 모든 정치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세임을 인정하며,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백성들을 섬기며 의롭고 공정한 정치를 펼쳐나갈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옵소서. 개인의 이익이나 당리당략보다는 나라와 백성을 먼저 생각하는 참된 지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들과 소상공인들, 그리고 청년들을 돌보아 주시옵소서. 물가 상승과 고용 불안 등으로 힘들어하는 모든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시고, 정부가 실효성 있는 정책들을 통해 서민들의 생활을 안정시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북한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구합니다. 분단의 아픔이 70년 이상 지속되고 있는 이 현실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평화의 길을 열어주시고 궁극적으로는 복음 통일의 그날이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한의 모든 주민들, 특히 고난받는 성도들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사회에 만연한 갈등과 분열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세대 간, 계층 간, 지역 간의 갈등을 넘어서서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성숙한 시민의식이 자리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교회가 사회 통합의 역할을 감당하며,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화해와 용서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복음의 본질을 회복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룩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한국 교회가 다시 한번 선교의 열정을 회복하여 열방에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 의와 공의가 강물같이 흐르는 나라가 되기를 간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0월 주일 오후 예배 기도문 5 - 선교와 전도를 위한 기도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마태복음 28:19)

선교의 하나님, 온 세상 만민의 구원을 원하시는 주님께 이 10월 주일 오후 시간에 선교와 전도를 위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한 수많은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의 마음을 우리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전 세계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언어와 문화의 장벽을 넘어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있는 모든 선교사들에게 성령의 능력과 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때로는 핍박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며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용기와 힘을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슬람권과 힌두교권, 불교권 등 복음에 대한 저항이 강한 지역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들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가정에도 평안을 주시고, 자녀들의 교육과 건강 문제까지도 세심하게 돌보아 주시옵소서. 현지인들과의 관계에서 진정한 신뢰를 쌓을 수 있게 하시고, 복음의 문이 활짝 열리는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나라에서 사역하는 외국인 선교사들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한국 문화에 적응하며 한국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들의 수고를 귀하게 여겨 주시고, 한국 교회들이 이들을 잘 후원하고 협력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각자도 일상 속에서 전도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직장과 학교, 가정과 이웃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할 수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로만이 아니라 삶의 모습을 통해 복음의 진리를 증거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이 가을철에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 주변의 이웃들과 동료들을 교회로 초청할 수 있는 기회들을 주시옵소서. 교회에 처음 나오는 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구합니다. 주님, 이 시대의 젊은이들이 선교에 대한 비전을 품고 헌신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국 교회가 다시 한번 선교 한국의 위상을

회복하고, 세계 복음화의 꿈을 품고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민족이 주님께 경배하는 그 날까지 우리가 충성된 일꾼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와 같은 10월 주일 오후 예배 기도문들을 통해 하나님과 더욱 깊은 교제를 나누시고,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더 많은 기도문 보러가기:

{대표 기도문 나눔터} <https://prayer-church.co.kr/>